

간행사

제16권 제2호의 출간을 맞게 되는 성균관 법학과 비교법연구소는 많은 변화와 함께 한해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지난여름 법과대학의 신축 이전과 함께 비교법연구소도 신축법학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자활연구소의 한계로 모든 것을 반듯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팔목상대할 만큼 달라졌다. 다음으로는 법과대학의 신축이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비교법연구소로서는 처음으로 교내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국제학술세미나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일들이 쌓여 앞으로 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제16권 제2호는 김옥곤 교수님의 정년기념호로 제작하였다. 김옥곤 교수님은 빼어난 저서와 연구논문을 통해 학자로서 민법발전에 기여하신 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학자로서의 외길을 걸어오신 모습은 후학들에게 큰 귀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제 교수로서 정해진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서 동료교수님들과 제자 및 후학의 글을 모아 성균관법학 기념호로 출간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념호는 원고가 넘쳐 2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원래 기고해주신 분들의 취지에 맞추어 2호와 3호를 모두 김옥곤 교수님 정년기념호로 제작하게 된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 9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매년 6월과 10월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던 발행일자를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조정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호부터 실비의 게재료를 받게 된 점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고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2월 30일

비교법연구소 소장

김형성